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 더 거세진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후폭풍 격앙된 친명, 비명에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안 가결 이튿날인 22일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는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은 원내대표가 전날 밤 원내 지도부와 함께 사퇴했음에도 친명계는 여전히 극도로 격앙된 채 가결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예고하며 비명계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당내 혼란 등 후폭풍은 이미 예고돼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비명계 때리기'를 주도하며 내용을 오히려 더 키우는 모습이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대여 비판이나 공세보다는 사실상 비명계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까지 원색적이고 거친 표현을 쓰며 '반란 세력' 대하듯 날 선 비난을 퍼부었다.

정 최고위원은 "제나라 국민이 제나라를 팔아먹었듯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의 대표를 팔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당원과 국민이 분노한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배신자, 독재 부역자들은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해당 행위 한 것을 공개하고 큰소리친 내부의 적부터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가세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SNS에 "자기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검찰에 당 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며 "반드시 엄중하게 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어제 그 상황은 가결파의 차도살인"이라며 "국민의힘을 빌어 이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부결파 색출에 나선 강성 당원들은 온 위원 회의에서 강성 당원들의 사퇴 요구

이다. 지도부 사퇴 요구를 자제하며 공개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가 하면 자신은 체

포동의안에 반대했다며 '부결표' 인증까 지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 위원 회의에서 강성 당원들의 사퇴 요구

과 함께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표적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 정도만 지도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그간 꾸준히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해온 이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 지도부"라며 "박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했으면 종사회가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 지도부를 배제하고 혼란 수습에 나서자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비대위로 가지 못한다면, 지금 지도부는 초선 의원도 많고 한목소리로 돼 있다. 여러 의견을 모아낼 수 있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 협의체라도 만들자"며 "전화위복의 리더십을 현재의 공식 지도부 맡고 다른 중진 의원들과 모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비명계의 '자제 모드'로 당내 계파 갈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점화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6일로 정해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주류인 친명계가 재차 혜계모니를 잡고 당 수습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당권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와 현 지도부를 유지하려는 친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내분 양상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분위기가 위낙 과열돼 '로 키'로 가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만약 구속되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 Photo New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추석차례상 시연 행사

조윤주 식품인단체협총보관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추석차례상 시연 행사에서 모델들과 함께 전통 차례상 차림 및 차례 예법을 소개하고 있다.

## 시진핑, 한총리 등 환영오찬

### "냉전적 사고·진영대결 배격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3일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각국 지도자급 인사들을 초청해 환영 오찬을 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한 총리를 비롯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 바샤르 알-아сад 시리아 대통령, 푸슈파 카랄 다클 네팔 총리, 조하리 암둘 말레이시아 하원의장 등을 초청해 환영 오찬을 주재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세계에 '중국의 특색, 아시아의 멋, 화려함'의 스포츠 행사를 보여주고, 아시아와 국제 공동 발전하며 개방과 융합의 아시아의 길을 계속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오후 5시30분) 시 주석과 면담한다. 면담 장소와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시 주석에게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와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수 기자

**posco  
INTERNATIONAL**

##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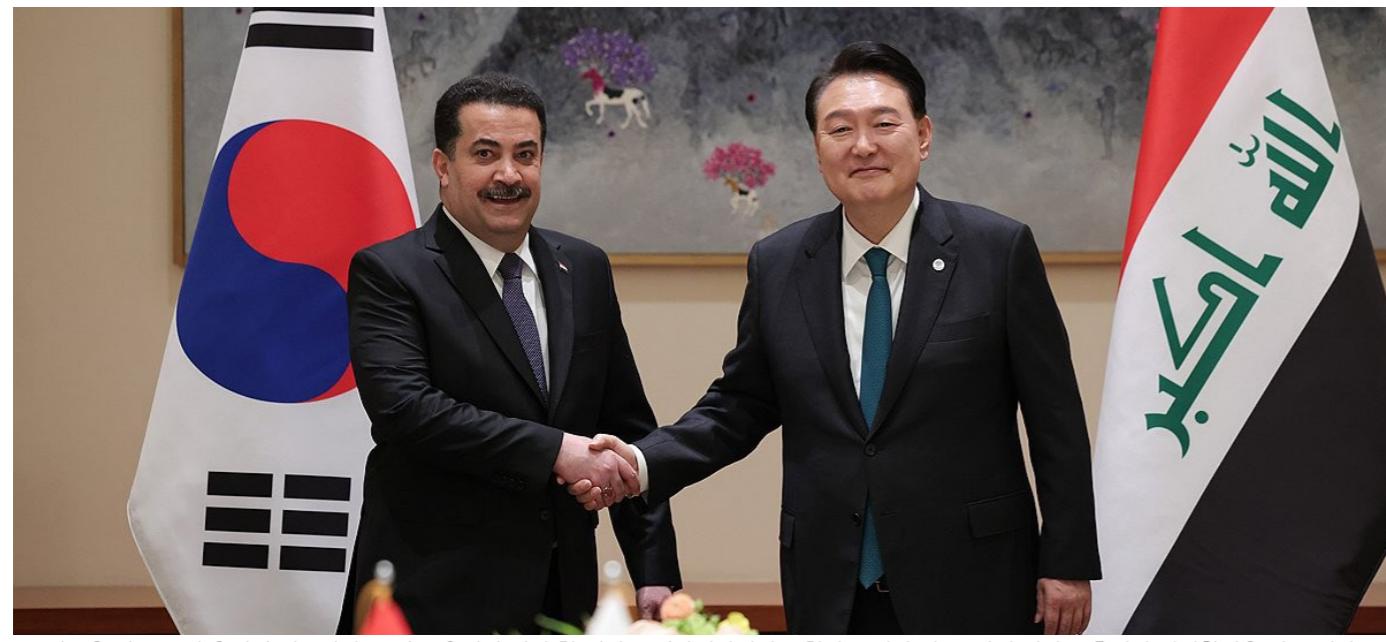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 尹대통령, 미국 출국 직전까지 막판 부산엑스포 외교전

이라크·세르비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정상들과 연쇄 회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이라크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시야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출국 직전까지 양자 회담을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시야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재개를 위해 알-수다니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알-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알-수다니 총리와 정상회담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알-수다니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장 건설에도 한국이 참여해 달라”고 제

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며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알-수다니 총리는 또 “이라크와 뒤르 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유시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도 한국이 참여해 달라”고 제

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부 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도 만나 부산엑스포 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 7월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조속히 개시해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랄프 에바라드 곤살브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회담에서는 “식량안보, 농업기술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곤살브스 총리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의장국으로서 한-카리브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도 오찬하며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자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날까지 41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개최했다.

/ 송원기 기자

현재, 현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심리 착수  
180일 내 결론내야

## 野 “보복 기소” vs 檢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현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현재는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조만간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기 원칙이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주심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현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현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 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현정사상 처음이다.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일단 직무가 정지됐다.

쟁점은 안 검사에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다. 단순히 법을 어긴 것으로는 부족하고 과연할 만큼 중대한 잘

못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현재 판례다. 국회는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국회는 안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 등을 규정한 검찰 청법 4조3항,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면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안 검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유씨가 이른바 ‘한치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당한 이익을 거둔 등 새로운 상황이 발견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취지다.

/ 최민성 기자

## S&P “BNK금융, 횡령사고로 평판 훼손 우려…손실은 감당 가능”



5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텠더드앤드푸어스(S&P)는 22일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로 그룹 BNK금융지주의 평판 훼손 가능

성이 커졌다면서도 재무적 손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P는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 및 평판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 모니터링 및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은 그룹의 리스크 관련 평가에 부담을 기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천98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S&P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행되지 못했고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한 후에도 금융당국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원은 약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대출 업무를 비롯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

행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횡령 사고가 BNK금융지주의 사업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BNK금융지주의 탄탄한 고객 기반이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해서 뒷받침 할 것”이라며 “횡령 사건으로 인한 그룹의 재무적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이어 “횡령 관련 손실 규모(595억원)는 지난해 그룹 세전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며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해당 손실을 지난해 및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 소급 반영했다”고 짚었다.

또 “그룹의 자체적인 회수 노력을 고려할 때 실제 손실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그룹은 약 30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신형철 기자

## 산업장관 “전기요금, 원가 반영해야 하지만…한전 쇄신 우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하겠다”고 말했다.

방장관은 “유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 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정훈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연내 한시적 증액’ 전망

지급 대상은 늘리지 않을 듯…전기차 판매 둔화하자 ‘고육지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에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환경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찾값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8천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천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천258대로 38%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천54대)의

31%(2천524대), 대전은 21%(6천68대 계획·1천269대 출고)만 출고했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통상의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 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천150만원이고, 서울은 180만 원이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 한정현 기자



## 교원 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는데 전국에 상담사 29명뿐

강득구 “교원치유지원센터 역할 하게…인력·예산편성 이뤄져야”

심리치료는 2020년 1천498건, 2021년 1천791건, 2022년 2천16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총 2만1천964건의 상담과 심리치료가 진행된 셈이다.

일부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이 알려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상담이나 심리치료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교육부는 교원 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상담사가 한정적인 만큼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맞게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양희진 기자

## 기름값 11주째 상승…이번주 휘발유 16.7원·경유 21.5원↑

### L당 휘발유 1천776.3원·경유 1천676.8원…“오름세 지속”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L당 16.7원 오른 1천776.3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7원 오른 1천776.3원이었다.

이는 1천85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1원 오른 1천745.6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천7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749.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1.5원 상승한 1천676.8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

출국기구(OPEC) 플러스 감산 지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분쟁 등의 요인으로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9원 오른 배럴당 94.4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7.2달러로 전주보다 0.5달러 내렸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내린 125.6달



러였다. 국제 유가 등락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주 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다음 주도 국내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오창섭 기자

## 시청광장서 해병대 서울수복 행사…“평화로운 내일 지키겠다”

###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 촉구 집회

참전용사와 유족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 21번 묘역에서 전사자 참배식이 진행됐다. 해병대 3·4기생과 참전용사들이 함께 손도장 태극기를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서울수복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한미 해병대가 대한민국의 수도를 탈환, 국권을 회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해병대는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그날의 환희와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한편 이날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는 용산국방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아들 같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자가 처벌받아 하느냐”며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호성 기자



##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등참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보탤 말씀이 없다”며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오늘은 제가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파

문이 커지는 만큼 검찰 차원에서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

# 與 “민주, 범죄혐의자 구하려 모든 권력 쏟아…이재명과 공범”

## 총리 해임건의·검사 탄핵소추에 “李 체포동의 보복 수단”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범죄 혐의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은 공범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국무총리 해임 카드 등을 끼내 들고 국정 운영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가”라며 “악질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 범죄 혐의자 보호를 위한 전문로珉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당 대표의 악질적 범죄 행위가 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상에 드러나 총선에 미칠 악영향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전과 4번의 이 대표를 둘러싼 술한 범죄 혐의 수사를 정쟁으로 몰며 사법 방해를 일삼는 것은 큰 범주에서 볼

때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범죄 혐의자 수사와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에 맡기고,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김행, ‘시누이에 주식 매각’ 논란에 “주식 수 착각…파킹 아냐”

### ‘그림 신고 누락’ 관련 “굵직한 것만 신고…일부러 숨긴 것 아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당초 해명과 달리 공동창업했던 회사의 본인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주식 수를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2013년 백지신탁 당시) 주식 몇 주가 어디로 들어갔고, 이런 걸 기억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식 수에 착각이 있을

수 있다”며 “갑자기 기자가 (주식 수를) 들이밀면 10년 전에 몇 주를 어떻게 팔았고 뒀는지 기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는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안내한 대로 했는데, 갑자기 ‘파킹’했다고 하면 당황스럽다. 제가 시누이에게 돈도 안 주고 명의를 옮겼다가 다시 찾아와야 파킹 이죠”라며 ‘꼼수 파킹’ 논란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이어 위키트리에 ‘김행 기자’ 이름을 달고 작성된 일부 기사와 게시글

김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선 “이 대표 사퇴 불사부터 반란표 색출 작업까지, 그야말로 악화(惡化)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직격했다.

그는 “자당 대표에게 당당하게 범죄 혐의를 벗을 기회를 주고자, 용기 있는 결정을 했던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부역자라는 오명까지 씌웠다”며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까지 동원해 이 대표 ‘구속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제 그만 친명(親明)” 접고, ‘친민(親民)’ 하길 바란다. 그것이 내년 총선 민주당도 의원님들도 살길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 권정석 기자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 법무부 “檢,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명백히 거짓

### “가짜뉴스 유포에 필요한 조치” 金 “판사, 한동훈 대학 동기” 주장

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달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달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달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 송진영 기자



질문에 답하는 김행 후보자

논란을 의식한 듯 “제가 쓴 글도 그렇고, 글은 맥락을 봐야 하거든요. 맥락보다는 단어 하나 꼬집어서 저를 반여성적 여성이라고 보면, 내 60년 넘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네요”라고 반박했다.

/ 이현석 기자

## 비명 송갑석, 野 지명직 최고위원 사의…“이재명, 고심 끝 수락”

###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여부 주목

비명(비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3일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인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극한 대립에 따른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송 최고위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는 고심 후 오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당직 개편 당시 계파 갈등을 주스르기 위한 일종의 ‘탕평책’으로 송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



송갑석 최고위원

했다.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앞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활동 등을 통해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다.

송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친명 중심의 당 지도부가 비명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고, 강성 당원들의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역시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강성 당원들의 사퇴 요구를 언급,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 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다. 당원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한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선출직이어서 당 대표 승인 없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 김철웅 기자

## 박진, 유엔 안보리 회의서 “北군사역량 강화 거래는 결의 위반”

### “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 완전 이행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거래의 위법성을 재차 경고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20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공개토의에 참석해 북한의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 수호 임무가 부여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노력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18일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과도 회동했다. 그는 알제리, 가이아나,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등 신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4개국 외교장관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안보리가 진영 갈등 등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상임이사국들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는 등 합의 도출을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안보리 수임 기간 평화유지·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에 중점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유엔총회 계기 21일 뉴욕에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

국으로서 한국과 공조하며 엄중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고, 콜로나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과 회담에서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및 북미 간 군사협력 협의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핀란드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최진성 기자

## 추석마중

주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2023 추석맞이 SPECIAL GIFT 9.15 ~ 9.24

· 건강가전 단일브랜드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롯데상품권 증정  
(현대/국민카드로 결제 시 3% 캐시 할인 + 15% 롯데상품권 증정)  
· 화장품 단일브랜드 20만원 이상 구매 시 7% 롯데상품권 증정



연장 영업시간 안내 | 서울 및 수도권 전철 9호선 마주 교 - 일 오후 4시 30분까지 | 자세한 내용은 롯데백화점 APP 참고

# 유료구독 사이트에 성관계 영상 올린 30대 부부 징역형

범죄수의 1억3천만원 추징…“범행 기간 길고 풍속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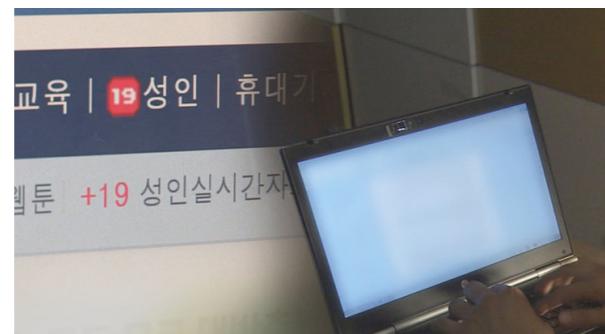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30대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 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의 1억3천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서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립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했다”고 덧붙였다.

/ 황순길 기자



22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의성군 이주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이 화물터미널 없는 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신공항터미널 위치’ 확전 양상 대구·의성, ‘합의’ 해석 엇갈려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대구시와 경북 의성군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경북 의성군은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배치하지 않으면 공항 추진은 어렵다”며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대구시는 지금까지 의성군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 시설 배치를 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의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동합의문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상호 신뢰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구시는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절차 없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를 대구시에 유리하게 언론에 활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 오정재 의성군 신공항지원과장은 “대구시가 이미 국방부와 공항과 관련한 모든 시설 배치를 다 미리 정해놓고서 의성군에는 (통보 형식으로) 설득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즉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제목의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대구시는 입장문에서 “2020년 7~8월 군위와 의성 공동합의문 작성 당시 여러 자료와 상황을 볼 때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 자명하다”며 “공동합의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항시설

협의 단계’에서도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제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군위에 들어설 화물터미널과 의성 물류단지 두 지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의성 물류단지는 자가통관시스템, 포장 통관 등으로 화물 터미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에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주로 동측은 군사 보안 지역이기에 민간 화물터미널 입지가 불가능하다”며 화물터미널을 활주로 동쪽 끝으로 옮기자는 일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의성 물류단지는 신공항 화물 운송을 전담하는 독점적 물류 단지로 경제 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지정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국토부·경북도와 협의해 의성군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성군 이주지역 대책위원회와 신공항 편입지역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도청 신도시 시 가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북과 팽과리를 치며 ‘빈껍데기 공항 이전 반대’, ‘의성군민 희생시켜 경북 발전 의미 없다’, ‘미래 없는 의성군, 도지사는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안면 이주지역 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 채형민 기자

##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범 2만7천여명 검거

구속률 0.8% 불과



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천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천575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

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법죄(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천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도 117명(0.4%)이다.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계속 1%를 밟아온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천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천431명(0.6%), 2021년 5만3천985명(0.8%), 2022년 5만1천937명(1.0%)이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천370건 중 5만8천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광역시



## 국회의원 비서관이 지역 축제장서

### 교환권으로 음식 대접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해당 의원의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해 잡음이 있다. 22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마을축제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국회의원 의원실 소속 A 비서관은 마을축제 개막을 보름여 앞둔 지난 1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A 비서관은 교환권 구매대금을 축제 개막 약 1달 전 현금으로 치렀고, 도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린 축제장에는 이 대금을 수익으로 산정했다.

축제는 이달 1일 열렸고, 회수된 교환권 일련번호와 판매 명세를 대조한 결과 A 비서관이 구매한 100만원 상당의 교환권은 한 장도 빠짐없이 먹거리 장터에서 사용됐다.

당국 국회의원은 이날 서울 일정으로

로 인해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유권자에게 음식 대접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외로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A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음식 교환권 100장을 사서 80장을 되팔고 20장만 내가 썼다”며 “축제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대금 출처를 두고는 “의원실 경비는 아니다. 개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 서종익 기자

2019년 5만9천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천431명(0.6%), 2021년 5만3천985명(0.8%), 2022년 5만1천937명(1.0%)이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천370건 중 5만8천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

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

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광역시



## 중소기업 대표 경영안전망 PL단체보험



국내 최초 운영

20년간 약 7만건 인수



경쟁력 있는 보험료

최대 28% 저렴



경기도 보험료 지원

보험료 20% 이내(백만원 한도)



6개 보험사 참여

삼성화재, 한화손보, DNB손보, 롯데손보, 충국화재,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02)2124-4351 www.pikorea.com

\* PL단체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캐나다, 우크라에 6천440억원 추가 지원…트뤼도-젤렌스키 회담



취재원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6억5천만 캐나다달러(약 6천440억원)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취재원 트뤼도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를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이 같은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전날

오후 이를간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트뤼도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하원에서 연설했다.

캐나다의 이번 지원금은 지난 5월 트뤼도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된 5억 캐나다달러(약 4천960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 지원에 이어 추가로 제공되는 것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집행된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 발발 이후 캐

### 젤렌스키, 의회서 연설…“생명과 정의가 승리해야”

나다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경제 차관 24억 캐나다달러(약 2조3천800억원)를 포함해 총 95억 캐나다달러(약 9조4천 200억원)에 달한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타와 하원에서 연설을 통해 “생명과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때 이는 단순히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 목숨을 구하는 문제로, 마리우폴이나 바흐무트 등 (우크라이나) 도시를 과거하는 러시아가 결코 징벌을 면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군사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캐나다의 무기와 장비 지원으로 우리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쟁에서 학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크렘린이 아니라 사람

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캐나다 의원들은 10여 차례 기립 박수를 보냈고, 방청석에는 전쟁을 피해 캐나다로 떠나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참석해 환호했다.

트뤼도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는지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21세기의 이 위대한 도전에서 선봉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만과 폭력, 억압으로 통치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그의 제국주의적 환상은 맹렬한 반격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개인·기관 63곳을 새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와 역정보·선동 공작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최석호 기자



학교 급식 외주화 이후 학부모가 싸 온 도시락 먹는 학생들

## 중 학교급식 외주화에 학부모들 반발

### “비위생적 즉석식품 위주”

중국 당국이 학교 급식을 외주업체의 즉석식품으로 바꾸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선 학교들이 급식을 자체 구내식당이 아닌 외주업체에 위탁, 즉석식품 위주로 대체하면서 식품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도시락을 직접 갖다줘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을 외주업체에 위탁해 미리 조리·가공된 식품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 이를 확대 보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공식품에 대한 통일된 표준이나 인증, 이력 확인 시스템 등 체계적인 감독 메커니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학교 식품 안전을 중시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다수 학부모도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

한 친환경 식품과 건강에 좋은 영양식을 먹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농촌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가공식품 육성·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개학과 함께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일선 학교들이 잇달아 즉석식품 등을 공급하는 외주업체에 학교 급식을 위탁했다.

그러나 외주업체가 공급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점심시간에 교실 밖에서 부모가 싸 온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의 모습이나 학교 측이 학교 진입을 막자 학생들이 교문 앞에 쪼그려 앉아 부모가 싸 온 도시락을 먹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

/ 민소현 기자

## “중국내 구금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정부·유엔 나서야”

### 탈북민단체대표 이소연씨 워싱턴서 호소 “中에 2천600명 구금 추정”



탈북여성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정부 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KN) 주최로 열린 증언 행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코로나 국경봉쇄’가 점차 풀리면서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미국을 찾은 탈북민 단체 대표가 호소했다.

탈북여성 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정부 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KN) 주최로 열린 증언 행사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 종사자들 집계에 따르면 현재 2천600명 가량의 탈북

민이 중국에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강제 북송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함에 따라 중국

에서 구금돼 있던 탈북민들은 한동안 강제 북송을 면했지만, 북한이 올해 여름부터 국경을 점진적으로 열기 시작하면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자신도 탈북을 시도했다가 북송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이 대표는 행사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살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은 북송되면 교화형 몇 년을 사는 반면, 한국에 가려고 시도하거나 교회 측과 접촉하다 붙잡혀 북송된 사람은 적대계급으로 취급돼 수용소로 가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보내라’는 목소리를 내고,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보복 조치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여론을 조성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주유엔 북한 대표부에 발송했고, 오늘은 워싱턴의 주미 중국대사관 부근에서 탈북민 북송 반대 집회도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 세계가 중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의 인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2004년 4월 북한인권 단체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앞마당에 모여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미국 포함 세계 60여개 국가의 중국대사관 부

근에서 탈북민 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도 최근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부대표는 19일 워싱턴에서 민주주의 기금(NED)과 국민통일방송 공동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백도경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시작

## 삼성 고(高)품격 인생보장보험

###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시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횟수, 한도, 보험금 감액지급내용, 보장개시일, 충복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등 주요 지급제한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정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5-1123 (브랜드광고파트, 2023.5.31 ~ 2024.5.30)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424호 (2023.9.12 ~ 2024.9.1)]

## 14일만에 달 남극에 해가 떴지만…영원히 잠든 인도 달착륙선

### 달의 밤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져…무게·비용때문에 보온장치 없어



달 남극 표면의 비크람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해 임무를 수행했던 인도의 달 착륙선과 탐사 로봇이 길고 추운 달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23일(현지시간) 인디아 투데이 등에 따르면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전날 달 남극에도 아침이 밝아오자 잠들었던 달 착륙선 비크람, 탐사 로봇 프라기안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ISRO는 앞으로 며칠 동안 교신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깨어나 다시 탐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착륙선 비크람은 23일 달 남극에 착륙했다. 이어 품고 온 탐사 로봇 프라기안이 내려 탐사를 시작했다. 그 사이 달의 밤이 찾아왔고 이들은 지난 3일 수면 모드에 들어갔다.

동하며 남극 표면에 황(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비크람은 달 남극 표면 토양의 기온을 측정하는 등 각종 과학 데이터를 지구로 보냈다. 비크람은 약 40cm를 점프해 안착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 그 사이 달의 밤이 찾아왔고 이들은 지난 3일 수면 모드에 들어갔다.

동한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14일 주기로 바뀌며 햇빛이 없는 달 남극의 밤은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진다.

이들은 태양 전지판을 해가 떠오를 곳을 향해 두고 잠들었고, 22일 달 남극에도 해가 떠올라 전지판을 데웠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비크람과 프라기안이 달의 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란것은 당초에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길고 혹독한 달의 밤을 견디려면 보온 장치를 달거나 더 내구성이 있는 부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만큼 비용과 무게, 복잡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ISRO는 이런 장치 없이 비크람과 프라기안이 달의 밤을 이겨내길 희망했다.

/ 손현수 기자

# 국내 반도체업계,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에 “선방했다”

첨단반도체 확장 기준 5%→10% 확대 요구는 반영 안돼

미국 상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반도체 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바꾸고, 상무부와 협의시 구축 중인 설비를 가드레일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도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중국 화웨이 신형 폰에서 SK하이닉스 제품이 나온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가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선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 스마트폰 부품에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더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며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제재 가능성에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유불리를 따지기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준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사실상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3월 공개한 안과 크게 다른 게 없다는 점에서는 선방했지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어 보인다”며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최종 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 정희성 기자



## LH, 설계·감리용역 한 달 만에 재개 “전관업체 입찰시 최대감점”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우선 ‘전관업체’ 기준부터 정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입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업체로 보기로 했다.

LH가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주기로 했다.

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나찰제 6점이다.

LH는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LH의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전관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LH가 규정한 ‘전관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LH는 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LH는 전관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 신재일 기자

## 식약처 “조민 ‘홍삼 체험’

### 유튜브 영상은 소비자 기만 광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같이 전해

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어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

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 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황은지 기자

## 공항부터 떠들썩…e스포츠, 최고 인기 종목 위상 확인

페이커 등 e스포츠 한국 대표팀 입국 현장에 중국 팬들 몰려



앞에 진을 쳤다.

‘슈퍼스타’ 이상혁을 보기 위해 공항을 찾은 팬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e스포츠 선수들에게 사인과 사진을 요청하는 팬도 꽤 많았다. 선수가 아닌 김정균 감독에게 다가가 사인을 받은 팬도 있었다.

이런 변화는 e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다.

스트리트 파이터 V에 출전하는 김관우는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며 “e스포츠는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매일 게임만 해도 혼내지 않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균 감독은 “e스포츠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페이커’ 이상혁은 이미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중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날 공항을 찾은 이상혁의 팬 중 절반 이상이 ‘젊은 여성 팬’이었다.

많은 프로 스포츠 관계자가 “젊은 여성 팬이 늘어나나 종목의 미래가 밝다”고 말한다. 이 기준이 옳다면 e스포츠는 ‘밝은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남연욱 기자

## “AI 시대, 학생이 직접 활용할 지식 배워야…강의식은 그만”

인공지능(AI) 시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지식은 단순 암기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AI 시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세부 전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절반을 바로 잊어버린다. 기억하고 있던 내용도 활용할 시기가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교실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을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가 AI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시킬 수 있는 창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육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기반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학교 제도와 교육

과정을 우선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학교에서의 평가제도,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화하는 교원 정책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최병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학교에서 AI를 통한 맞춤형 개별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사교육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AI 시대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사회·정서적 지도자가 되며 수업 콘텐츠도 디지털 교과서와 AI 활용 콘텐츠로 다양하게 바뀔 것”이라며 “수월성 교육도 가능해지고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I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중요한데 대표적인 방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노승만 기자

**우정사업본부**

**간~병에는 효자 없다지만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간병보장, 요양보장에 각종 사망보장까지 장기요양 진단 및 간병지급보장으로 맞춤형 혜택 가능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명권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면: 전문보험계약자] 제한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간 전화를 통해 기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청약내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거점 또는 보험료 인상에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금도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 개인의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간접계약의 기인(나이)은 주계약 만기(나이) + 세금까지입니다.

• 지금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www.eposlife.go.kr](http://www.eposlife.go.kr), 모바일 웹 [m.eposlife.kr](http://m.eposlife.kr) 또는 기관 우체국(우체국F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우체국보험 다이렉트 ☎ 070-5074-4560 · 승인번호 00-230817-756-P400059(2023.9.22 ~ 2023.12.31)

## 김동연 지사, 美 애리조나주지사 면담…첨단산업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오전 방한 중인 미국 애리조나주 케이티 흡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애리조나주 간 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케이티 흡스 주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치체로 반도체 기업의 64%가 위치해 있고 배터리,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어 애리조나주와 혁신동맹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사다리(외국대학 무료연수) 사업 협력을 통해 애리조나주의 여러 우수한 대학과 인적교류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케이티 흡스 주지사는 “김동연 지



김동연 지사, 美 애리조나주지사 면담…첨단산업 협력 논의

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의 기회를 논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과 무역 관계 증진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한국 방문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원과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자 흡스 주지사는 “다시 만나 계속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

대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애리조나주와 교류 관계가 없어 양 지역 차지단체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 등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교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티 흡스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한 덕수 국무총리 외에 국내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김 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룬 디센 티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도 한 종리 외에 국내 정치인으로는 김 지사와만 면담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송진영 기자



강원도 글로벌본부에서 열린 시책보고회

## 강원도 2청사, 여권 발급 외에 종합민원까지 업무 확대

### 영동권 주민 변화 느낄 사업 추진…역할·위상 정립

올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가 내년에는 종합민원 업무 까지 기능을 확대해 2청사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본부는 21일 제2청사 글로벌 본부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주재로 열린 2024 주요 시책 및 핵심 현안 사업 보고 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글로벌본부 산하 실·국인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관광재단이 참여해 미래 산업, 관광, 해양수산 3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글로벌본부는 영동 남부권역 주민들이 제2청사 개청으로 행정서비스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위주 민원 업무에서 병정 민원 등 종합민원 기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산업분야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

성을 위한 생산시설과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탄광의 조기 폐광으로 경기침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합 레저리조트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관광 분야는 연말 착공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 준공과 연계한 탐방시설 구축사업, 취미 여행과 아웃도어 체험관광 등 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 세계 60조 규모의 연어 시장을 장악할 K-연어 양식 기술 개발과 인프라 조성에 대해 의논했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은 제2청사 개청 60일”이라며 “글로벌본부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그 자체인 만큼 제2청사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비전 실현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윤 기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조세불복지원

#### 경정청구

#### 상속, 증여세 자문

#### 세무조사지원

#### 세무신고

## 나주시, 전남 최초 365일 자녀 돌봄 보육실 개원



전남 나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연중무휴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22일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위탁 보육 시설로 선정된 빛가람동 소재 킨더브레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실 개원식을 열었다.

부모의 맞벌이, 애인, 병원 진료·입원 등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중무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박소희 기자

## “귀농귀촌인 정착 돋는다” 충북도 재능나눔활동 지원

충북도는 귀농귀촌인들이 이웃과 쉽게 어울리도록 재능나눔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들의 소속감도 높여주는 취지다.

도는 올해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6개 시·군에서 18명의 귀농귀촌인을 선발해 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활동 분야는 음악, 미술, 요가, 공예, 외국어 교육,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제한이 없다.

마을 벽화작업이나 홍보 영상 제작,



노후 주택 수리 등도 가능하다.

20세 이상 귀농귀촌인 중 해당 분야 자격증이나 교육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시·군에서 받는다. 선발된 귀농귀촌인에게는 한 달 50

만원 범위에서 활동비와 재료비 등이

/ 백서연 기자

# 안산시장, 국토부 장관에게 '신안산선 연장' 등 지역 현안 건의

## 장상지구 서해안고속도 IC 개설·반월공단 규제 협파 등 5가지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5가지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현안은 ▲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 도로 임시 사용(개방) ▲ 안산장상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이다.

그는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지역을 정부가 2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의 시점과 종점인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및 세계



안고속도로 진출입 IC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규제협파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입주 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이차 전자 및 수소, 로봇 등의 첨단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안산시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 박현욱 기자

## "가파도 이장님! 택배요" 드론 날아 집 앞마당까지 배달

### 국토부·행안부·제주도, 본섬~가파도 드론 택배 서비스 시연

'윙~윙!'

22일 대형 드론이 선물 등이 담긴 15kg 상당의 택배를 싣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상공을 날았다.

이 드론은 3km 정도 남쪽으로 향해 날아가 10여분 만에 가파도 드론 배송센터로 택배를 배달했다.

이어 가파도 배송센터에서는 다른 드론 4대에 각 3~4kg 무게의 택배를 분류해 옮겨 실었다.

택배가 옮겨 실어진 드론 4대는 가파도 내 경로당과 집배원의 집, 치안센터,

가파리 이장 집으로 각각 출발했다.

택배 배송 드론들은 사전에 구축된 드론 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으로 날아 각 배달지인 집 마당의 2~3m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 망에 떨어뜨린 후 다시 배송센터로 귀환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 남단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연했다.

드론은 활용한 택배 배송은 차차 일

시불란하게 진행됐으며 대정읍 상모리에서 가파도 내 각 배달지까지 30여분

만에 배달이 완료됐다.

가파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배를 타고 본섬 상모리 선착장으로 나가 민간 회사의 택배를 가져와야 하거나 배를 통해 주 1회 들어오는 우체국 택배를 받기까지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가파도 주민들은 드론 배송이 활성화될 경우 이런 불편 없이 빠르고 편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속에 이날 시연을 바라봤다.

국토부는 가파도를 지난 3월 '2023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드론 기업, 물류업체 등과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에서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좌표를 포함한 주소 체계를 부여하고 드론 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는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2곳의 드론 배송거점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 이승연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글로벌 생활 필수품

글로벌리스트를 위한 필수카드와 해외에서 더 특별해지는 트래블플레이까지!!

### 신한카드 글로버스 ▶ 해외 이용 수수료 총 1.18% 할인 ▶ 해외 기행점 이용 시 1.7% 적립 ▶ 특급호텔 할인,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등 신한카드 트래블플레이 ▶ 여행부터 직구까지, One-stop 해외이용 혜택 서비스

※ 신한카드 글로버스 연회비 : 국내(Local) 2만 2천원 해외(Master) 2만 2천원 해외(Master) 이용 조건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예인 사용자 : 회원별 이용상황별 약정금액+최대 연 20% 범위 최고금액(연 20% 이내)에서 적용. 단, 연예 별별 사용점에 약정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별 기록 연체 시 : 기록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기기일) 유저자 할부금리+유저자 할부 기록 연체 시 : 기록 발생 시점의 등기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저자 할부금리+신한카드 할부금이 부정정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용자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내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카드발급에 상향하여야 합니다. ※ 상황능력에 비해 신용도는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특히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한카드 이용내금을 연체한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한카드 이용내금을 반제한 및 무기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신용제2023-02-09040호 (2023.08.11~2024.08.10)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전월 실적, 해외 이용 수수료 할인 등 이용조건에 대한 상세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d by \$ 신한카드

## 신분당선 내달 요금 또 인상 승객·인터넷 카페 '부글부글'



터는 4천100원을 내야 한다. 신분당선을 타고 이 구간을 출퇴근하는 직장이라면 매일 왕복 요금 8천2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운임에 구간별 별도 운임, 거리 초과 운임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신분당선의 운임체계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민자 노선인 데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구간의 사업자가 모두 달라서다.

2011년 운행을 시작한 1단계 강남~정자 구간은 신분당선(주), 2016년 개통한 2단계 정자~광교 구간은 경기철도(주), 지난 해 5월 개통한 3단계 강남~신사 구간은 새서울철도(주)가 사업 시행을 맡았다.

신분당선의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5월 강남~신사 구간 개통에 따른 요금 조정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운영사 측은 2011년 신분당선 개통 이래 2012년 2월, 2014년 8월, 2019년 4월, 지난 해 5월까지 4차례 운임 조정을 했다.

21일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타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운임 조정 계획을 최근 험페이지에 공지했다.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신분당선 성인 기준 기본운임은 1천 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신분당선은 여기에 구간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별도 운임'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신사~강남구간 별도 운임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강남~정자~정자~광교 구간 연계 이용 시 600원 할인은 500원으로 100원 줄어든다.

노선의 시작과 끝 지점인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전 구간을 편도로 이용하면 현재 요금이 3천650원인데 다음 달 7일부

## "반갑다 인왕봉"…무등산 정상, 57년만에 빗장 풀었다

### 1966년 방공포대 주둔으로 통제된 정상부 상시 개방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군부대 주둔으로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무등산 정상부를 이날 57년 만에 상시 개방했다.

"광주의 무등산은 산 위에 긴 바위가 가지처럼 뻗은 것이 수십 개나 공중에 배열되어 있어 훌륭한 훌고 험난한 산세가 지극히 준엄하여 온 도(道)를 위압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지리지에 무등산을 이처럼 기술했다.

'지극히 준엄한' 광주의 진산(鎮山) 무등산 정상이 57년 만에 시민 품에 안겼다.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23일 오전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식을 열고 목제 울타리 걷어내기, 시민과 걷기 등으로 기쁨을 나눴다.

상기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 옆을 지나 인왕봉 전망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왕복 약 390m이다.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로는 폭이 약 1.8m로 한 사람씩 지나갈 수 있다.

상시 개방 첫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한꺼번에 몰려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인왕봉 전망대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줄이 이어졌다.

긴 기다림 끝에 인왕봉 전망대에 오른 시민들은 들뜬 표정으로 끝을 하늘 아래 펼쳐진 초기를 즐겼다.

광주 북구 동립동에 사는 시민 한모(70)씨는 "시원하다. 올라오면서 땀은 좀 흘렸는데 경치도 좋고 기분이 좋다. 무등산이 명산은 명산이다. 정상에서 탁 트인 경치를 보니 기분이 벅차다"고 말했다.

탐방객들은 군사기밀 노출을 막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탓에 경관 구경은 '반쪽'에 그친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높이 3m, 길이 90m가량인 가림막은 군부대 후문 옆부터 인왕봉까지 설치됐다.

정모(66·여)씨는 "시꺼먼 가림막 때문에 최고봉인 천왕봉 쪽은 보이지도 않는 다"며 "기대가 컸는데 막상 와보니 답답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등산 정상은 공군부대(방공포대)가 주둔한 1966년부터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다가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한시적으로 개방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공군 제1 미사일 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시 개방을 추진, '9월 개방' 약속을 지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은 광주시민을 넉넉히 품어줬던 산"이라며 "올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5년, 정상부 상시 개방을 시작한 오늘은 무등산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인정하는 위상에 맞는 모습을 되찾은 날"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조해 방공포대 이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방공포대가 이전되면 무등산 정상부 천·지·인왕봉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채영 기자

## 아시안게임 남북, 24일 첫 대결…복싱·유도에서 맞상대



복싱 대표팀 오연지(왼쪽)

로 나서는 상징적인 선수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복싱 여자 60kg급에서도 오연지(울산시체육회)와 북한 원은경이 1회전 경기에서 만난다.

대회 첫 남북 맞대결은 이날 오전에 열릴 수도 있다. 유도 남자 66kg급 안바울(남양주시청)은 1라운드를 부진승으로 통

과하는 가운데, 북한 리금성이 이란 아불파즈 마흐무디를 누르면 두 선수는 16강에서 만나게 된다.

같은 날 유도 여자 48kg급 이해경(광주 도시철도공사)은 북한 전수성, 여자 52kg급 정예린(인천시청)은 북한 김원금, 남자

방철미는 이번 대회 개회식 북한 기수

### 복싱 임애지-방철미, 오연지-원은경 1R 경기

29일엔 여자농구…박지수-로숙영, 동료에서 적으로

60kg급 이하림(한국마사회)은 북한 채광진과 준결승에서 만날 수 있다.

유도 맞대결이 확정된 체급도 있다.

25일 유도 여자 70kg급에 출전하는 여자 70kg급 한희주(KH필룩스)는 1라운드에서 2002년생인 북한 문성희와 맞대결 한다. 같은 날 남자 73kg급에 나서는 강현철(용인시청)은 북한 김철광이 1회전 상

대 카림 압둘라에브(아랍에미리트)를 누르면 16강에서 대결한다.

김철광은 2018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들과 남북 단일팀을 이뤄 힘을 합쳤으나 이번 대회에선 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29일 오후 6시 30분엔 여자 농구 대표팀이 북한과 조별리그 C조 맞대결을 펼친다. 남북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을 꾸려 은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한반도기를 달고 단일팀 '트윈 타워'로 맹활약했던 한국 간판 박지수와 북한 간판 로숙영은 5년 만에 경쟁 자로 만난다.

북한 여자 농구 대표팀의 실력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생 북한 박진아의 신장은 205cm에 달한다.

5년 전 단일팀을 꾸려 여자 500m 금메달, 여자 200m 동메달, 남자 1,000m 동메달을 획득했던 남북 드래곤보트는 이번 대회에서 경쟁자로 나선다.

남북은 10월 4일 남녀 200m, 5일 남녀 500m, 6일 남녀 1,000m에서 경쟁한다.

5년 전 북한 선수들과 헤어지면서 평평 눈물을 쏟았던 여자 대표팀 변은정은 상대 선수로 북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

당시 함께 노를 저었던 북한 허수정, 정예성이 이번 대회에서도 경기에 나선다.

5년 전 자카르타 현지에서 합동 훈련을 하며 끈끈한 민족애를 나눴던 남북 레슬링은 10월 5일부터 맞대결한다.

북한은 남녀선수 각각 4명씩 총 8명을 파견한다. 이밖에 남북은 양궁, 남녀 축구, 사격, 여자배구, 역도 등에서 경쟁한다.

북한은 당초 191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23일 현재 185명으로 줄었다.

/ 최준용 기자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우승한 김현겸

## 피겨 김현겸, 주니어 GP 5차대회 개인 최고점 우승…파이널 확정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기대주 김현겸(한광고)이 2023-2024 국제빙상경기 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으로 우승하며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다.

김현겸은 23일 형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4점, 예술점수(PCS) 71.50점, 감점 1점을 합쳐 149.54점을 따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얻은 72.61점을 더해 총점 222.15를 따낸 김현겸은 스위스의 나오키 로시(204.79점)를 17.36점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데뷔 3시즌 만에 따낸 김현겸의 개인 통산 첫 금메달이자, 지난 3일 끝난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은메달에 이어 두 개 대회 연속 입상이다. 김현겸은 ISU 공인 프리스케이팅 기준 개인 최고점(138.31점)을 11.23점이나 끌어올렸고, 총 점 역시 기준 최고점(213.56점)을 8.59점이나 높이는 경기사를 누렸다.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하고 올해 대전 유니폼을 입은 유강현의 뒤늦은 '대전 데뷔골'이었다. 유강현의 득점은 결승 골이 됐다.

수원은 전반 추가시간 안병준의 슈팅 상황에서 서영재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안병준의 슈팅이 대전 골키퍼 이창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혀 득점 기회를 날렸다.

대전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티아고 가 쇄기 골을 뽑아내 승리에 미침표를 찍었다.

대전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티아고 가 쇄기 골을 뽑아내 승리에 미침표를 찍었다.

대전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티아고 가 쇄기 골을 뽑아내 승리에 미침표를 찍었다.

이준영이 2014년 8월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ISU 공인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2016년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를 석권한 차준환과 지난 9일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우승한 서민규(경신중)에 이어 김현겸이 '금빛 계보'를 이었다.

더불어 이번 시즌 참가한 두 개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랭킹 포인트 15점)과 한 차례 준우승(랭킹 포인트 13점)을 따낸 김현겸은 랭킹 포인트 합계 28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현겸은 올 시즌 랭킹 포

인트 순위에서 최소 4위를 확정. 이번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상위 6명만 출전하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 남자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을 확보한 것은 이준영(2014년), 차준환(2016년) 이후 김현겸이 통산 세 번째다. 퀴드러플 점프(4회전)와 트리플 악셀(3회전)의 완성도를 높인 게 금메달의 발판이 됐다.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김현겸은 자신의 필살기인 기본점 9.50점의 고난도 퀴드러플 토크프(4회전)를 첫 점프 과제로 뛰어 수행점수(GOE)를 1.76 쟁기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곧바로 트리플 악셀(기본점 8점)도 GOE 1.49점을 받은 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크프 토크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10점)에서도 GOE 1.26점을 확보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현겸은 이어진 트리플 토크프에서는 GOE를 0.53점 깎였지만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3) 이후 가산점 구간에서 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크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1.11점)에서 GOE 1.18점을 받으며 점수를 보충했다. 6번째 점프 과제로 뛴 트리플 러프에서 넘어지며 감점 1과 함께 GOE 1.96점을 차감해 기록에 기여했다.

김현겸은 마지막 점프로 시도한 트리플 살코-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를 무리 없이 소화했고,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3) 이후 가산점 구간에서 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크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1.11점)에서 GOE 1.18점을 받으며 점수를 보충했다. 6번째 점프 과제로 뛴 트리플 러프에서 넘어지며 감점 1과 함께 GOE 1.96점을 차감해 기록에 기여했다.

김현겸은 마지막 점프로 시도한 트리플 살코-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를 무리 없이 소화했고,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3) 이후 가산점 구간에서 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크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1.11점)에서 GOE 1.18점을 받으며 점수를 보충했다. 6번째 점프 과제로 뛴 트리플 러프에서 넘어지며 감점 1과 함께 GOE 1.96점을 차감해 기록에 기여했다.

## K리그1 대전, 'PK 실축' 수원에 3-1 승리…'파이널A 불씨'

### 대전, 4경기 만에 승리…'꼴찌' 수원은 4연패 수렁



골을 넣고 기뻐하는 대전 유강현

다. 선제골은 대전의 몫이었다.

전반 7분 주세종의 후방 패스를 받은 서영재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오른발슛을 때린 게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김인균이 골 지역 정면에서 논스톱 윈

발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 신철호 기자

# 포항 10년 포항의 맛

oo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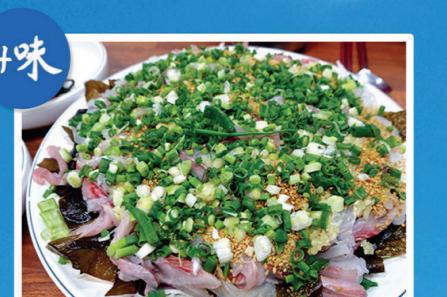
1味



2味



3味



4味



5味



6味



8味



9味



10味



소머리곰탕

물회

아구탕

## BTS 슈가, 병역 의무 시작…“2025년에 봅시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육관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그는 그러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마쳤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슈가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 사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지난 2020년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와순을 통합하는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슈가는 “쌀쌀한 가을 환절기 조심하시라. 건강히 잘 지내다가 우리 모두 2025년에 봅시다”며 “아미!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팬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와 순차적으로 두 번째 재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멤버들과 소속사는 군 복무를 마친 2025년 완전체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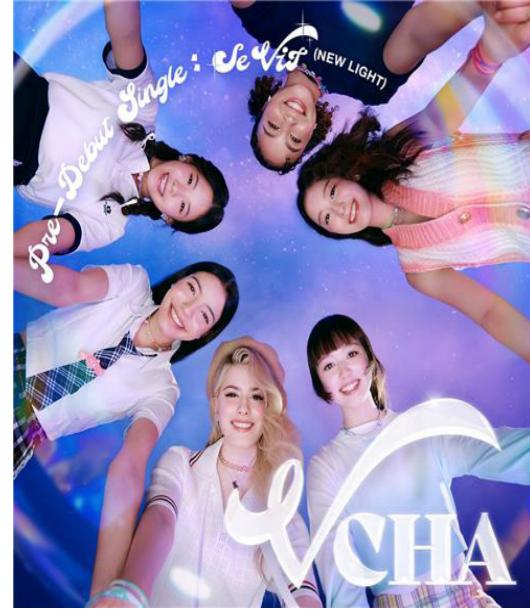
/ 장희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는 2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병역 의무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아미(방탄소년단 팬)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며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성실하게 잘 복무 마치고 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3년생인 슈가는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

### JYP·美 리퍼블릭 합작 걸그룹 프리 데뷔 싱글 ‘새빛’ 발매



지, 카밀라, 사바나, 케일리, 켄달 등 6명으로 이루어진 걸그룹이다.

그룹명 ‘VCHA’는 팬과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는 마음을 담아 JYP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직접 지었다. 새 싱글에는 타이틀곡 ‘와이.오.유니버스’(Y.O.Universe)를 비롯해 ‘고 게터’(Go Getter), ‘노우 미 라이크 댓’(Know Me Like That) 등 세 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와이.오.유니버스’는 샘 스미스의 노래 ‘언홀리’ 프로듀서로도 알려진 서킷(Cirkut)이 작사·작곡에 참여했으며 A2K 프로

젝트 참가자들의 서사와 ‘우리는 모두 다르기에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지난 7월부터 JYP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A2K는 JYP와 유니버설 뮤직 산하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드가 손을 잡고 북미 최초로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적용한 글로벌 걸그룹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정된 VCHA

는 이번 프리 데뷔 싱글 발매에 이어 국내 음악 방송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VCHA는 미국과 한국에서 오디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멤버 렉시, 케이



### 기은세, 결혼 11년 만에 이혼 “서로 앞으로의 길 응원”

배우 기은세가 결혼 생활 11년 만에 이혼했다.

기은세는 22일 소속사 써브라임을 통해 “오랜 기간 함께해오던 이와 서로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주며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좋은 작품과 활동으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은세는 2012년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는 없다. 기은세는 2006년 KBS 드라마 ‘투명 인간 최장수’로 데뷔했고,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2019),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2021) 등에 출연했다.

지난 21일 개봉한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서 대서(윤현민 분)의 여자친구 유진을 연기했다.

/ 김채윤 기자

/ 임성준 기자

### “숲에서 만나요, 포레스트 강원”

강원 세계잼버리수련장 및 고성·속초·인제·양양 부행시장  
2023. 9. 22.~10. 22.(31일간)

Ticket 티켓 예매?  
할인기간 : 8. 12.~9. 21.

어린이	청소년	일반
예매할인 4,000원	6,000원	8,000원
현장구입 5,000원	7,000원	10,000원

직접구매 : NH농협은행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인터넷구매 : YES 24.COM



행사장 전경

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후암치유관

산업교류관

강원특별자치도

## 주말극장가, ‘잠’·‘가문의 영광: 리턴즈’ 2파전

유재석 감독의 스릴러 영화 ‘잠’과 돌아온 코미디 프랜차이즈 ‘가문의 영광: 리턴즈’(이하 ‘가문의 영광 6’)가 주말 극장가에서 2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2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잠’은 전날 2만5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2.3%)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자리했다. 누적 관객 수는 119만여 명이 됐다.

이선균과 정유미가 주연한 이 영화는 이달 6일 개봉 이후부터 줄곧 정상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가문의 영광 6’는 개봉일인 전날 2만1천여 명(21.2%)을 동원해 2위로 출발했다.

정태원·정용기 감독이 연출한 ‘가문의 영광 6’는 2012년 ‘가문의 귀환’ 이후 11



년 만에 나온 ‘가문의 영광’ 시리즈 신작이다. 막내딸을 유명 작가와 결혼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장씨 가문의 작전을

그렸다.

추석 연휴를 겨냥한 영화들이 아직 개봉하지 않은 만큼, 이번 주말에도 ‘잠’과 ‘가문의 영광 6’가 1~2위를 다투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 강제규 감독의 ‘1947 보스톤’과 경합할 예정이다.

‘거미집’과 ‘1947 보스톤’은 각각 예매율 15.1%(4만9천여 명), 14.0%(4만5천여 명)를 기록 중이다.

/ 임현주 기자

### 인순이·박미경·신효범·이은미 뭉쳤다

### KBS ‘골든걸스’ 첫선



가수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가

4인조 여성 그룹으로 뭉친다. KBS 2TV는 새 음악 프로그램 ‘골든걸스’를 내달 27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한다고 21일 밝혔다.

‘골든걸스’는 개성 강한 디바 4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맡았던 인순이는 특유의 리더십과 노련함으로 팀을 이끌고, 동갑내기 절친한 친구 사이인 박미경과 신효범은 ‘찰떡 케미’를 뽐낼 예정이다. 이은미는 그룹 내

막내를 맡아 활약한다.

그룹을 이끌 프로듀서 역에는 박진영이 나섰다. 직접 멤버들을 찾아 다니며 섭외했다는 박진영은 “지금까지 만들어보고 싶었던 꿈의 그룹”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현재 촬영을 시작한 상태며 멤버들 모두 자존심을 걸고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 현우진 기자



### 수자·양세종의 로코 ‘이두나!’ 내달 20일 공개

넷플릭스는 새 오리지널 시리즈 ‘이두나!’를 내달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두나!’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이 원작으로, 평범한 대학생 이원준(양세종 분)이 세어하우스에서 인기 아이돌 생활을 접고 숨어 지내는 이두나(배수지)를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다. 20대 초반 갑자기 찾아온 낯설고 간지러운 감정을 그려냈다.

연출을 맡은 이정효 감독은 “관계가 나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캐릭터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짚어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 조유진 기자

###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http://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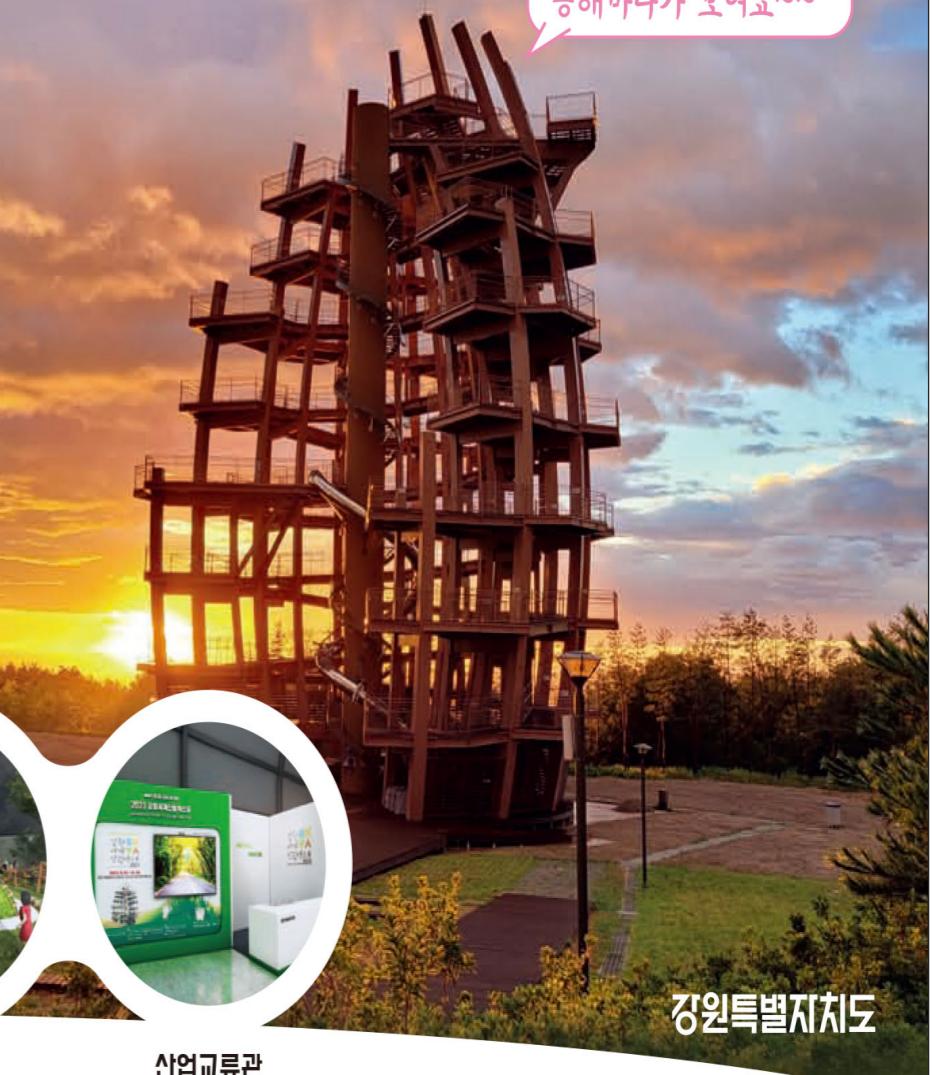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랜드마크 솔방울 전망대  
동해바다가 보여요~~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 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6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ibkethics@bk.co.kr